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상 준¹⁾

경일대학교 인문사회자율전공학과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가출청소년들의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교사지지, 컴퓨터프로그램참여도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전국 25개소의 중장기쉼터에서 158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첫째, 변수간 상관관계는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교사지지, 컴퓨터프로그램참여도, 임파워먼트가 모두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임파워먼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유의미한 변수들 중 낙관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친구지지,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친구들의 지지가 많을수록,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출청소년, 임파워먼트, 중장기쉼터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교신저자 : 경일대학교 인문사회자율전공학과, 조교수 (Email : sharelove2@naver.com)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 명을 정점으로 2011년 1,014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청소년의 가출경험은 2002년 8.5%에서 2010년 13.7%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a;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이들의 가출경향은 최근 총 가출 횟수가 평균 7.8회, 첫 가출 나이가 13세 이하 44.9%, 평균 최장 가출기간이 171일로 반복가출, 저연령화, 장기화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b). 특히 반복가출은 가출의 장기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는 이유는 돌아갈 가정이 이들에게 더 이상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 중 60-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부모의 알코올중독, 가족갈등, 폭력과 성학대, 방임 등의 가족요인으로 나타난 연구들(남미애, 1998; 여성가족부, 2010b; Rew, Taylor-Seehafer, Thomas, & Yockey, 2001)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학대가 상습적 가출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남미애, 1998)와 가정보다는 거리가 오히려 더 나은 보상이 있었고(Wingert, Higgitt & Ristock, 2005), 가정은 그들을 곤경으로 밀어 넣는 곳이기 때문에 길거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Auerswald, & Eyre, 2002) 가출청소년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자신 이외의 문제나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탈출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자신도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고 부모들도 이들을 찾아 나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현온강, 이홍숙, 200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재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afyer, Thompson, Maccio, Zittel-Palamara, & Greg, 2004) 청소년쉼터는 이들의 보호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 3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중장기쉼터는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증진 관점은 이들의 문제 예방뿐 아니라 긍정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성장가능성 접근에 대한 인식을 취해가고 있다(Wong, Zimmerman, & Parker, 2010). 이는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와 병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이들의 자원과 보호요인 및 강점에 초점을 두는 강점중심의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최근 연구자들에게 강점관점을 대표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연구는 빈곤가정(김수정, 2008; 김희성, 2002; 이해경, 2007)과, 한부모가정 청소년(박진영, 2000), 집단괴롭힘 피해학생(변귀연, 2002), 일반청소년(김윤나, 정건희, 최윤진, 2010; 남궁은숙, 신영화, 2011; 윤동엽, 문성호, 2010)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에도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

다. 최근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의 가출(homeless)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와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Ferguson, Kim, & McCoy, 2011)가 보고되었으나 이 연구는 20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와 같은 경험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Staples, 1990), 자원의 접근성이 결핍된 개인 및 집단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곧 지배적 힘(power-over)의 개념과 개인효능감, 대처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인식을 증진시키는 지향적 힘(power-to)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Banyard, & LaPlant, 2002). 여기에서 지배적 힘이란 자신 스스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지향적 힘이란 자신의 변화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문제해결적 능력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 연구는 일부 억압받는 소수집단에 대한 실천적 개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박탈된 사람의 능력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을 찾는 것으로 정의된다(Saleebey, 1992). 즉, 환경적 위협이나 박탈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스스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준, 남영옥, 2008). 따라서 가출이라는 위험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자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개인은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과 환경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UNESCO, n.d.; Nicole, & Jaya, 2009 재인용).

임파워먼트 이론의 핵심 연구자들 중 한명인 Zimmerman(1995)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다수준의 구성을 갖고 있다. 즉, 개인적, 조직적, 지역사회 수준으로 구성된다. 그는 개인적 수준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행동적(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구별될 수 있지만, 다른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은 임파워먼트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떠받치고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Gutiérrez, DeLois, & GlenMaye, 1995; Querimit, & Conner, 2003; Wagaman, 2011 재인용), 특히 청소년 임파워먼트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Wagaman, 2011).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

인은 강점관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험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기여요인이며, 강점관점의 연구에 동반되어야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영향요인은 구체적으로 개인내적 측면인 낙관성, 사회적 측면인 친구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교사의 지지와 프로그램 참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낙관성은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Perkins, & Jones, 2004), 앞으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Scheier, & Carver, 1992). 자신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산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8-59세까지의 빈곤가정 학대경험 청소년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aslow, et al., 2002)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자에 비해 비경험자가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학업적 영역에서 탄력적인 청소년들이 비탄력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낙관적이며(Lewis III, 2003),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Tusaie-Mumford, 2001). 그리고 빈곤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질적연구(Andrews, Guadalupe, & Bolden, 2003)에서도 이들의 지각된 임파워먼트에 대해 낙관성에 대한 개인내적 태도는 중요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낙관성은 주요요인

으로 예측된다.

가족의 지지가 취약한 위험환경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는 많은 가출청소년 특히, 기관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의지가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Unger, Kipke, Simon, & Johnson, 1998), 그들이 길거리에서 생존하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견뎌내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Ferguson et al., 2011). 그리고 지지적 친구집단의 개입이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Bao, Whitbeck, & Hoyt, 2000; Unger et al., 1998). 이러한 친구의 지지는 일반 청소년(남궁은숙, 신영화, 2011)뿐 아니라 빈곤가정 청소년(김수정, 2008)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이혜경, 2007)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만큼 그 또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고(Hoglund, & Leadbeater, 2004),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이나 학업성취,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준, 2006; Perkins, & Jones, 2004). Ferguson 등(2011)이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시설에서 먼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청

소년이 새로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길거리에서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직원들보다 삶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직원과의 사이에서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또래집단의 성향이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과 맺는 관계는 이들이 성인역할 모델과 만나는 첫 번째 긍정적 경험이며(Ferguson, et al., 2011),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족이었고, 친구이자 선생이며, 그들 삶의 모델이었다고 한다(정경은, 2008). 이처럼 쉼터의 교사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증연구(남궁은숙, 신영화, 2011)에서도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끝으로 참여는 임파워먼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임파워먼트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조직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청소년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사회적 통제감을 향상시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McMillan, 1995; Ortiz-Torres, 1994; Zimmerman, 1990; 김희성, 2005 재인용),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들(김윤나 등, 2010; 윤동엽, 문성호, 2010)에서도 참여 관련변수가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에서

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가출청소년들의 탄력성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규필, 2005). 이처럼 낙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프로그램 참여도는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주요요인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독립변수들(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현재 전국에 소재한 총 27개소의 중장기쉼터에서 협조가 가능한 25개소 16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성실한 응답자 1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의 표집은 확률표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

가 가능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자는 49.4%(78명), 여자는 50.6%(80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정의한 개념을 Zimmerman(1995) 등을 근거로 김희성(2002)이 청소년 측정에 적용하기 위해 번안, 수정하여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한 척도 중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사용하였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능력, 집단인식, 자기결정의 개념을 포함한 29문항이며,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85,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88, 전체 .91로 나타났다.

낙관성

Perkins와 Jones(2004) 등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상준(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LOT-R은 자

신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다. 9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Dubow과 Ullman(1989) 등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86로 나타났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Perkins와 Jones(2004) 등의 또래집단 특성도구를 바탕으로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잘 협력한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거나 돕는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61로 나타났다.

쉽터 교사지지

이영자(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에서 쉽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규필(2005)이 재구성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쉼터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

조규필(2005)과 이상준(2011)이 가출청소년쉼터에서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극성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과 청소년이 해당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하는지의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총 2문항이며, 도구의 타당성은 쉼터전문가들에게 질문지를 의뢰할 때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9년 11월에 전국 27개 중장기 쉼터 중 협조가 가능한 25개소에서 166명의 가출청소년을 우편조사 하였으며, 이들 중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5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임파워먼트 및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 관련변인의 기술통계치(표 1)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의 분석결과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1.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독립변수들(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 간의 관계

표 2는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표 1. 임파워먼트 수준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N=158$)

변 수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임파워먼트	2.74	0.34	1.63	3.73
낙관성	3.03	0.55	1.63	4.00
친구지지	3.18	0.55	1.60	4.00
또래친사회적특성	2.95	0.40	2.10	4.00
쉼터교사지지	3.38	0.59	1.00	4.00
프로그램참여도	3.90	0.77	2.00	5.00

표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낙관성	1.00					
2. 친구지지	.22**	1.00				
3. 또래특성	.45***	.44**	1.00			
4. 쉼터교사지지	.31***	.29***	.36***	1.00		
5. 프로그램참여도	.19*	.27***	.26**	.33***	1.00	
6. 임파워먼트	.59***	.43***	.55***	.32***	.34***	1.00

* $p < .05$, ** $p < .01$, *** $p < .001$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임파워먼트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독립변수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44,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쉼터 교사지지 .3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40 이하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3은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표 3.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임파워먼트	(상수)	.732	.171	-	4.271***
	낙관성	.258	.040	.419	6.481***
	친구지지	.122	.040	.196	3.021**
	또래친사회적특성	.200	.060	.235	3.331**
	쉼터교사지지	.0009.037	.001	.001	.991
	프로그램참여도	.064	.027	.144	2.340*
$R^2 = .514$, $F = 32.147$ ***					

* $p < .05$, ** $p < .01$, *** $p < .001$

하기 위해 낙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 교사의 지지 컴퓨터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력은 낙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컴퓨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낙관성($\beta=.419$)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beta=.235$), 친구지지($\beta=.196$),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도($\beta=.144$) 순으로 임파워먼트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다중회귀모형은 전체 임파워먼트에 대해 51.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장기컴퓨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15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가출청소년들의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교사지지, 컴퓨터프로그램참여도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와 주요 독립변수인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컴퓨터 교사지지,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독립변수들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은 낙관성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친구지지,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중장기컴퓨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친구들의 지지가 많을수록,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이들의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이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강점관점 연구인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탄력성(Tusaie-Mumford, 2001)과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이상준, 2006)에 낙관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질적분석을 통해서 빈곤 여성의 지각된 임파워먼트에 낙관적인 태도가 주요 경로로 나타난 Andrews 등(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의 유효한 영향력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궁은숙, 신영화, 2011)와 빈곤가정 청소년 연구(김수정, 2008),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이혜경, 2007)에서 친구지지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지지적 친구집단의 개입이 길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Bao et al., 2000; Unger et al., 1998)과 맥을 같이 하고 있

다. 그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점관점의 연구인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이상준, 2006)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Perkins와 Jones의 연구결과(2004)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분석을 수행한 Ferguson 등(2011)의 연구에서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동료멘토로서의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임파워먼트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Zimmerman, & Rapport, 1988)에서 이들의 참여와 임파워먼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청소년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윤나 등, 2010),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경험 관련 변수들이 모두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윤동엽, 문성호, 201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필요한 주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들은 공식적으로 최장 3년까지 생활하며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쉼터를 떠나서 독립을 이루었을 때에도 그 독립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파워먼트 즉, 자신이 처한 환경적 취약함에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변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자신 내부의 잠재력과 능력, 관계적인 힘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낙관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태도의 증거이며, 지지적 자원에 대한 믿음이고,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Andrews et al., 2003)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의 서비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낙관적 태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쉼터 전문가들이 이러한 낙관적 태도의 향상을 목표로 한 독자적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지적인 친구집단과 친사회적인 또래집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친사회적인 또래집단은 Ferguson 등(2011)의 연구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성공적 경험 또는 자립을 이룬 선배나 동년배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내의 자원으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지지적 친구집단과 함께 조우하고, 성공적인 경험이나 자립을 공유하며, 그에 필요한 자원이나 강점들을 전수받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사회관계망과 대인관계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확립하고,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Whitbeck, 2009).

셋째,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다. 중장기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은 길거리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존감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지지를 제공하며, 그 시설에서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관계망과 대인관계를 함께 제공한다(정경은, 2008; Park, 2004). 따라서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독립과 자립을 쟁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가 쉼터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참여는 이들의 적극성과 열정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초기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조사도구의 한계이다. 특히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관련요인들

의 선택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연구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쉼터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출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가출청소년 표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5, 9-36.
- 김윤나, 정건희, 최윤진 (2010). 청소년자치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3), 1-23.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연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성 (2005).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참여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2(1), 325-345.
- 남궁은숙, 신영화 (2011).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4, 29-61.
-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63-90.

- 박진영 (2000). 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귀연 (2002).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2010a).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b). 2010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윤동엽, 문성호 (2010).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01-123.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준 (201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 · 보호요인의 효과: 가출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
- 이상준, 남영옥 (2008).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63-82.
- 이영자 (1996).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은 (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 근거이론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규필 (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 쉼터의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점검종합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현온강, 이홍숙 (2001). 청소년쉼터에서의 가출 청소년과 쉼터종사자들의 생활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163-195.
- Andrews, A. B., Guadalupe, J. L., & Bolden, E. (2003). Faith, hope, and mutual support: Paths to empowerment as perceived by women in poverty.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4(1), 5-18.
- Auerswald, C. L., & Eyre, S. L. (2002). Youth homelessness in San Francisco: A life cycle approa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4(10), 1497-1512.
- Banyard, V. L., & LaPlant, L. E. (2002). Exploring link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empower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687-707.
- Bao, W., Whitbeck, L. B., & Hoyt, D. R. (2000). Abuse,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4), 408-420.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18(1), 52.
- Ferguson, K. M., Kim, M. A., & McCoy, S. (2011). Enhancing empowerment and leadership among homeless youth in agency and community settings: A grounded theory approac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8(1), 1-22.
- Hoglund, B. J., & Leadbeater, B. J. (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 Kaslow, N. J., Thompson, M. P., Okun, A., Price, A., Young, S., Bender, M., Wychoff, S., Twomey, H., Goldin, J., & Parker, R. (2002). Risk and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behavior in abused African American woma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2), 311-319.
- Lewis III, M. K. (200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lated constructs among academically resilient and academically nonresilient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Nicole, M., & Jaya. E. (2009). Youth empowerment for the most vulnerable: A model based on the pedagogy of Freir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Health Education*, 109(5), 424-438.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 (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Safyer, A. W., Thompson, S. J., Maccio, E. M., Zittel-Palamara, K. M., & Greg, F. (2004).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runaway behavior: Problems and solu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5), 495-512.
- Saleebey, D.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Publishing Group.
- Scheier, M. F., & Carver, S.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6.
- Staples, L. H.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29-42.
- Tusaie-Mumford, K. (2001). *Psychosocial resilience in rural adolescents: Optimis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gender differen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 Johnson, C. J.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Wagaman, M. A. (2011). Social empathy as a framework for adolescent empowerment.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78-293.
- Whitbeck, L. B. (2009). *Mental health and emerging adulthood among homeless young people*. New York: Psychology Press.
- Wingert, S., Higgitt, N., & Ristock, J. (2005).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54-80.
- Wong, N. T., Zimmerman, M. A., & Parker, E. A. (2010). A Typology of youth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for child and adolescent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6*(1-2), 100-114.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81-599.
- Zimmerman, M. A., & Rap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31.

1차원고접수 : 2012. 1. 9

수정원고접수 : 2012. 2. 13

최종게재결정 : 2012. 2. 27

Influential Factors in the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Lee, Sang-June

Dept. of Liberal Arts in Humanity and Social Science,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uncover the correlation of independence variables and the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and the relative influences of optimism, the support of friends,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shelter teache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upon their empowerment. The sample consisted of 158 runaway adolescents living in 25 mid to long-term youth shelt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mpower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ptimism, the support of friends,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shelter teache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Second,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optimism was identified as the variable that had the most impact on their empowerment. The support of friends, exercise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is, followed by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In other words, holding more optimistic attitudes towards one's future, stronger support of friends, the better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the higher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all led to the improved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 empowerment, mid-longterm shelter